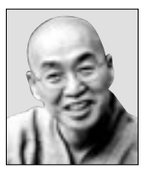
일 주 문



정토회 여름 명상수련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여름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02)587-8990



제33회 백고좌 법회 회향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 스님은 5월 24일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법문을 끝으로 제33회 백고좌법회를 회향했다.



교정인불자연합회 수련회

류성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불광사에서 21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호국불교포럼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6월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을 초청해 '국가와 호국불교'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한다.



불국토 상조 업무제휴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5월 30일 BTN 불국토상조와 상조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국제불교연합 5월 25일 창립 법회



국제불교연합(위원장 재원)은 5월 2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스님 및 재가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국제불교연합은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또 국제불교연합은 불교인으로서 인도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실천방법으로 산하 국제불교연합대학, 국제불교연합재난구조단, 국제불교연합미디어사업단, 국제불교연합승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제1회 국제불교연합엑스포 개최 계획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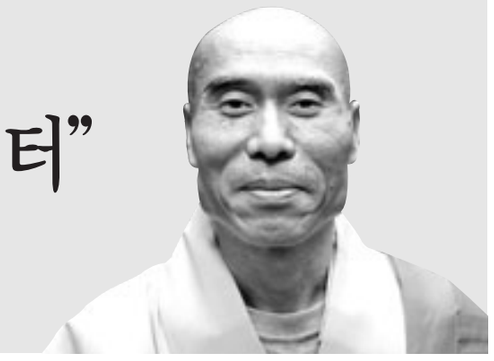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 초대 임원진으로 국제불교연합대학 이사장에 재원 스님, 국제불교연합재난구조단 이사장에 현오 스님, 국제불교연합미디어사업단 이사장에 천강 스님, 국제불교연합복지재단 이사장에 청운 스님 등이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가 평안·발전 위해 지역 종교인 힘 모을 터"

Interview

고양종교인평화회의 초대 대표회장 대오 스님



2015년 평화통일음악회서 제안
국태민안 기원 흥국사 전통 이어
평화 심포지엄·걷기대회 등 추진

"2015년 '평화통일특별시' 원년을 선언한 고양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웃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웃종교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이해하면 종교 간 평화가 지역, 국가의 평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가 5월 2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식 창립한 가운데 초대 대표회장으로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사진〉이 위촉됐다. 대오 스님은 5월 30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인들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고양시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 평화통일에까지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2015년 10월, 흥국사가 주최한 한민족평화통일음악회에서 처음 발원했다. 당시 대오 스님이 개신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통일교·유교 총 7개 종단 대표자들을 초청해 '남북평화통일 공동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종교인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6년 4월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정관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7일 공식 창립하게 됐다.

'평화'에 대한 대오 스님의 서원은 흥국사 주지로서 책임감이기도 하다. 흥국사는 국운이 쇠퇴하고 승풍이 쇠락했던 1904년 10월,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만일염불회를 결의했다. 이처럼 대오 스님은 갈등과 반목이 산재한 현대 사회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원찰인 흥국사는 일제강점기 전후인 1904~1932년 국태민안을 축원하며 만일염불을 했습니다. 오늘날 흥국사가 한민족 평화통일 음악회, 만일염불기도를 진행할 뿐 아니라 고양종교인평화회의 출범을 주도한 것은 국가의 평안과 발전을 염원했던 역사적 뜻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대오 스님의 최종 목표는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대오 스님은 "종교인들은 종교 간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방관해선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최대 불행은 남북분단"이라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민간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는 민간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는 앞으로 △창립기념 종교와 평화 심포지엄(7월 4일 일산동구청)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산사 음악회(9월 23일 흥국사) △고양시 종교인 DMZ 평화걷기대회(11월 하순 평화누리길)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대오·도원 스님(불교), 유재덕·강경민 목사(개신교), 서근수 신부(천주교), 장석준·김우정 교무(원불교), 이영찬·선호술(유교) 씨가 맡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나태주·김제현·권영민 유심작품상

시상식 8월 11일 인제 만해마을서


나태주


김제현


권영민

시인 나태주(72), 시조시인 김제현(78), 문학평론가 권영민(69)씨가 제15회 유심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나태주의 시 '어린 아이' 외 1편과 김제현의 시조 '한 세상 사는 법을 어디 가서 배우랴' 외 1편이다. 문학평론가 권영민은 특별상을 받는다.

심사위는 나태주 시인의 '어린아이'에 대해 "나태주는 문학적 민중시인이다.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고, 소박하면서도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남다른 상상력이 작품의 특징이다"고 평했다. 김제현 시조시인의 시조작품에 대해서는 "시조를 한 단계 높였다. 조요로운 관조와 마음을 비워낸 성찰의 한 끝에서 문득 뽑아낸 촌철살인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권영민 문학평론가의 특별상 사유에 대해서는 "텍스트라는 언어의 구조물과 그 텍스트를 산출한 사회문화적 조건 및 작가의 정신을 등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11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상금은 각각 2000만원씩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 봉행

자승 스님 "평화·행복 일상되도록 정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달마대사로부터 근원해 중국의 찬란한 5종 가풍으로 꽃피웠듯, 무념무수의 종풍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의 사바에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인류의 행복이 속성취하여지이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이웃과 사회 모두에 편안한 웃음이 흐르도록,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삶이 모두의 일상이도록 정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전등사 이주민문화축제 화제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5월 28일 경내에서 제12회 이주민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전성수 인천시 부시장, 정규원 강화군 부군수, 정지천 동국대 의료원 부원장을 비롯한 1000여 이주민이 참가했다.

전등사 주지 승석 스님은 "언어와 문화, 생김새는 제각각이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천 은해사 신도회 새롭게 출범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5월 28일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생전예수재 및 제27대 신도회 출범식을 가졌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이연화 신임 신도회장에게 신도회기를 전달하고 고문·자문 위원들을 비롯한 임원진 100여명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연화 신임 신도회장은 "지역봉사와 본말사 신행단체의 원융과 화합, 그리고 신도회의 발전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효성사 탄신 1400주기 다례재



원효성사 탄신 1400주기 다례재가 원효 스님의 탄생지인 경북 경산 제석사(주지 경흥)에서 5월 27일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제석사 주지 경흥 스님, 경산불교총연합회장 도오 스님, 최영조 경산시장,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경흥 스님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직면한 작금의 현실 속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재, 국민 속으로 가다"

화엄사(華嚴寺)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세미나

세미나명 : 화엄사(華嚴寺)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3시 ~ 16시
장 소 : 구례 화엄사 화엄원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주 최 : 구례 화엄사 주 관 : ㈜씨피엔문화유산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문화재는 국민 속으로'** 라는 주제로 화엄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합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기존의 건축 중심 불사에서 탈피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화엄사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불사방안을 고민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두 손 모음

■ 세미나 일정

개회 및 주지 덕문스님 인사말,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 축사 / 영상물 시청	
13:20 ~ 13:30	화엄사 세미나 참고 영상물 시청
13:30 ~ 15:00	토론 • 1부 토론 사회 : 이재호 (씨피엔문화유산 국장) ▸세미나 기조 발제 대진스님 (화엄사성보박물관 관장) –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재 현황 김동현 (前 문화재위원·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화엄사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방향 최응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 화엄사 불교문화유산의 가치 임영애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화엄사 불교문화유산의 활용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 – 화엄사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문제점 홍광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화엄사 사찰 조경 보존과 활용 오세덕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 화엄사 석조 문화재 현황 및 보존 방안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 화엄사 석경의 복원 및 활용 박동석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 사찰문화재 활용 방안 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의 필요 박한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재 관람료 대체 방안 김종승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 명승 내 사찰 보존관리 대책
휴 식	15:10 ~ 15:20
15:20 ~ 16:00	• 2부 자유토론 ▸주제❶ : 화엄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전남도청·구례군청 문화재정책 담당자 ▸주제❷ : 화엄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아이디어 김선희 (환경운동연합) – 환경 친화적인 문화재보존 관리 김경수 (한국문화재재단 기획조정실 홍보팀) – 효율적인 사찰 문화재 홍보 방안